

차별경험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회평등과 노력성취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Volunteering among the Second Baby Boom Generation – The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Equal Opportunity and Achievement by Personal Merit

윤예인, 이현민, 김옥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e-In Yoon(make-moon@hanmail.net), Hyunmin Lee(objection@hanmail.net),
Wook-Jin Kim(kimwj0227@uos.ac.kr)

요약

이 연구에서는 차별경험과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 시민참여활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겪는 차별경험이 기회평등과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매개로 자원봉사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점검하였다. 분석자료는 동그라미 재단의 「2016년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에서 확보하였다. 분석대상은 설문조사 당시 만 42세부터 만 48세였던 2차 베이비붐 474명으로 제한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차별경험은 기회평등과 노력성취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매개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자원봉사 | 차별경험 | 기회평등 | 노력성취 | 2차베이비붐세대 |

Abstract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volunteering activities among the 2nd baby boom generation. Specificall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 examined how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volunteering among the 2nd baby boom generation is mediated by the negative per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nd achievement by personal meri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6 National Survey on Unequal Opportunity from the Circle Foundation. The research sample was comprised of 474 baby boomers ages 42 to 48 at the time of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discrimination affects the level of volunteering among the 2nd baby boom generation, through the negative per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nd achievement by personal merit. Based on the findings, we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that could promote volunteering activities among the 2nd baby boom generation.

■ keyword : | Volunteering | Discrimination | Equal Opportunity | Achievement by Merit | 2nd Babyboom Generation |

*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2월 21일

수정일자 : 2018년 12월 21일

교신저자 : 김옥진, e-mail : kimwj0227@uos.ac.kr

I.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의 집단응집력은 우려할만한 수준에 놓여 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와 과도한 개인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여를 강조하는 힘으로서의 집단응집력을 와해하고 있다[1]. 공동체 붕괴를 막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집단응집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시민의 사회참여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주목한다.

사회참여활동은 정치활동, 경제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취미활동, 친목활동, 봉사활동 등 신체적, 심리적으로 대외관계와 접촉을 유지하는 다양한 사회행위들을 총칭한다[2]. 이 가운데 특히 자원봉사는 이타성, 무보수성, 자발성,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의 자발적 사회참여활동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를 구성하며 시민 개개인을 주류사회에 통합시키는 구심점으로서의 힘을 갖는다[3][4]. 이런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의 집단응집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5].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의 기능 외에 사회서비스 영역과 종류의 확대, 봉사자의 잠재력 확인, 사회적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 파급효과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널리 장려되어 왔다[6]. 그런 만큼 자원봉사와 관련성을 갖는 요인들에 관한 학술조사는 오래 전부터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7]. 특히 일부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자원봉사 관련요인 중 시민이 경험하는 차별에 주목하여 그것이 자원봉사활동을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왜 저해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8].

차별이란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구학적 배경이 상이한 개인이나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 대상을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불이익들을 겪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9]. 차별경험은 개인의 심리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차별을 경험하면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저해되고 우울감과 자살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10]. 차별경험은 대인관계 및 공동체 내 상호작용에도 심각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차별은 그것을 경험한 개인으로 하여금 기회평등 및 노력성취를 통한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불신하게 만들고 고립감과 무력감, 열패감을 형성, 심화시키며 주류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의를 품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11][12]. 특히 차별경험에 따라 높아진 소외감, 무력감, 열패감, 분노, 적의 등 부정적 인식들은 시민사회 성원들의 참여와 관여에 관한 자발적 역량을 저해하고 연대감, 책임의식, 주인의식 같은 공동체 존속 및 번영, 발전에 필요한 생산적 가치들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집단응집력을 와해하는 부정적 힘으로 비화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13].

이 연구에서는 상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별경험이 시민의 자발적 사회참여활동,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이와 함께 차별경험과 자원봉사참여의 관계에서 기회평등과 노력성취를 통한 상향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인지적 평가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점검한다.

연구대상은 현재 40대 중후반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까닭은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들만큼 사회적, 경제적으로 왕성한 활동력과 생산력을 보이는 준거집단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4].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파악해볼 수 있다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상과 파급력, 역할, 위치 등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차별과 불평등, 계급이동,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에 관한 논의에서 이 연구의 조사결과가 갖는 시사점과 일반화가능성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별경험이 기회평등과 노력성취를 매개로 시민의 사회참여활동,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문헌에 보고된 바 없다. 이 연구는 상기 변수들의 관계를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력과 생산력을 보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점검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발적 자치역량을 포함한 집단응집력 강화에 필

요한 기초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나아가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II. 문헌검토

1. 2차 베이비붐 세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에 걸쳐 대규모 인구 증가의 시기가 있었다[15][16]. 가장 먼저 시작된 인구증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1963년에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1차 베이비붐 세대라 부른다. 현재 50대 말에서 60대 초 연령대에 속하는 695만 명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1974년 급속한 경제성장에 출생한 세대이다. 현재 40대 중반에서 후반부의 연령대에 속하는 638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3차 베이비붐 세대는 1979~1992년 출생한 954만 명이며 이들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서 전체 인구의 19.9%를 차지한다. 이 세 번의 출산기에 태어난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6.7%에 이를 만큼 큰 규모를 구성한다[17]. 이 연구는 상기 세 개의 베이비붐 세대 중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력과 생산력을 보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풍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한 최초의 세대라는 점이다[18]. 1970년대 압축성장과 1980년대 중반의 장기호황기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20대 성년 초기인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문명정부 시대를 맞아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결실을 누렸다. 그런 만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소비활동, 문화 및 여가 향유에 있어 적극적이고 기성세대에 비해 자기정체성 확립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 또한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강한 양성평등 의식을 갖고 있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풍기면서도 가족적 가치와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양식을 내면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19].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40대 장년층의 주축을 이루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20]. 2017년 말 기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78.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가구 총자산 중 15.8%를 보유하고 있다[21]. 문화적으로도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자본주의적 대중문화를 온전히 향유하는 세대이다. TV, 영화를 상시적으로 즐기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과 소셜네트워킹 능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 탁월하다. 또한 해외여행의 자유화, 프로스포츠헌법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입고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다[22].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이와 같은 특징들로 인해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정의내리기 어렵다는 의미로부터 비롯된 'X세대'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지난 몇 년 간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하였다[23].

요약하면, 2차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한국사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심 세력이며 사회경제적 활동력과 생산력이 막대한, 그리하여 지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고 있는 코호트 집단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명백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차별성은 현세대까지 지속되는 맥락적 특성을 구성한다. 즉 이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선동하고 이를 지속시켜온 주체이다. 그러나 현재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제 막 은퇴기에 접어든 1차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문헌에 보고된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소득이나 소비생활, 주거환경 등 경제적 측면과 같이 제한된 주제를 대상으로만 수행되었을 뿐이다[24][25]. 따라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 접근과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특별한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시민의 이타적 사회참여활동의 한 유형이다[26]. 비교적 간단한 개념인 듯 보이지만 자원봉사는 그 핵심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이타성, 무보수성, 자발성, 공공성을 둘러싸고 아직 미해결된 쟁점 사안들이 몇 가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완전하게 합의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27]. 이에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연합 자원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은 자원봉사의 개념 정의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28]. 오늘날 각국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자원봉사참여와 비참여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27].

사회가 점차 복잡하게 분화,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와 욕구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여기에 맞물려 자원봉사 활동에 자신의 무급노동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증하였다. 실제로 자원봉사 참여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19세 이상 남녀성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999년 14.0%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16.3%, 2005년 20.5%, 2011년 21.4%, 2014년 2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29].

자원봉사는 이타성, 무보수성, 자발성, 공공성과 같은 공동체정신을 기반으로 삼는 대표적인 시민의 사회참여활동이다. 자원봉사는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며 시민 개개인을 주류사회로 통합시키는 중심점으로서의 힘을 갖는다[3][4]. 이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일찍이 우리 사회의 집단응집력의 주요 강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5]. 정부 역시 자원봉사의 긍정적 효과를 오래 전부터 간파하여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왔다[6].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학계에서도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체 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논리를 근거로 자원봉사 활동에 큰 관심을 쏟으며 다각적인 조사를 수행해왔다. 특히 연구들은 자원봉사를 촉진 혹은 저해하는 관련요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7], 이 가운데 일부 연구들은 시민이 경험하는 차별에 주목하여 그것이 자원봉사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왜 저해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8]. 차별경험이 자원봉사참여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유와 과정에 관한 설명은 아래에 제시한다.

3. 차별

차별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구학적 배경이 상이한 개인이나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 대상을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불이익들을 겪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9]. 차별에 관한 국내 법규의 정의를 살펴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은 사회 제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은 총 19가지의 차별사유별 차별유형을 제시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을 차별의 구체적 유형들로 열거하였다.

차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편견이론이다[30]. 편견이론은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이 특정 대상을 가치절하하는 이유, 과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차별 현상을 규명한다[31]. 구체적으로, 편견이론은 모든 대상들이 한 사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지향되는 가치나 규범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가치나 규범에 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 대상은 주류집단으로부터 가치절하된 평가에 직면한다. 가치절하된 대상이 주류집단의 보편적 평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면 이들에게는 낙인이 찍힌다[32]. 그리고 그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고착화되어 해당 대상을 주류집단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결과를 야기한다[33]. 이러한 분리 과정을 겪으면서 낙인이 찍힌 대상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대외적 참여활동에서 이탈, 배제, 격리된다는 것이 편견이론의 핵심이다.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개인은 자아이미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 삶의 안녕 등의 긍정적 감

정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우울감, 자살의도, 열패감 등의 부정적 감정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10]. 최신 연구결과들은 차별경험이 주관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객관적 건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한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진방위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12].

차별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차별은 대인관계와 공동체 내외부에서의 상호작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11]. 차별은 그것을 경험한 개인으로 하여금 상황이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들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못하다는 불신을 갖게 하고 상황이동의 결과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성취가 아닌 가정환경이나 연줄 같은 귀속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외감, 무력감, 열패감 등의 부정적 감정들은 공동체 현안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여, 나아가 주류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으로까지 확장되어 우리 사회의 집단응집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비화한다[34].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동의 기회 자체가 부당하게 주어지고 성취요인이 아닌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귀속요인에 의해 상황이동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부정적 인식은 공동체 존속과 번영, 발전에 필수적인 연대감, 책임의식, 주인의식과 같은 바람직한 가치규범을 말살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자치역량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13].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집단응집력을 와해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한다.

4. 기회평등

모든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목적 달성 그 자체와 무관한 이유로 인해 방해받아서 안 된다[35]. 또한 목적 달성에 어떤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모든 개인은 그와 같은 자질 배양에 적합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목적을 두고 경쟁하는 타인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여지를 보장받아야 한다[36]. 다시 말해, 가정환경이나 학맥, 인맥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귀속요인들로 인해 개인은 고유한 목적 추구를 방해받아서

안 되며 성장과정이나 생활여건 등 외부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타인들과 벌이는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37]. 기회평등 개념은 바로 이러한 논리, 즉 그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 목적 추구를 위해 자기 능력을 사용할 때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다. 만약 설명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이유로 가용 기회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불이익을 경험한다면 해당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기회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기존 불평등 시스템을 용인하는 숙명론적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각종 기회들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인식은 해당 개인에게 무력감, 열패감, 소외감을 안겨 준다[38].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설명 불가능한 이유들로 인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해당 개인은 숙명론적 사고를 내면화하며 이는 기존의 불평등 시스템을 묵인하는 체념적 태도를 넘어 공동체 내 모든 형태의 사회참여와 활동들에 대한 냉소와 회의로 귀결, 고착화된다[39]. 부당하게 기회를 독점하는 -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 기득권층에 대한 소외계층의 불신과 불만은 커지게 되며 후자는 전자를 더 이상 동일한 경계선 안에 위치한 운명공동체의 동반자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야기된 이와 같은 분열과 적의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점한 사람들 간의 대화와 타협, 협력 및 신뢰 형성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자원봉사, 기부행동 같은 시민의 이타적 사회참여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한다[40].

요약하면, 한 사회 내 기회평등의 수준은 시민의 사회참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특히 실질적 기회불평등이 시민의 사회참여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간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적 요소, 즉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인지적 평가 역시 실질적 기회불평등만큼이나 시민의 사회참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다[41].

5. 노력성취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학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고 각종 불이익을 경험한 개인은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인식이 내면화되면 개인의 노력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낙관과 계층 사다다리를 통해 상향이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은 증발해 버린다[42].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격려는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신화로 폄하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에 필요한 요소가 개인의 노력 등 성취요인에 있다기보다 가정환경이나 학맥, 인맥 등 연줄과 같은 귀속요인에 있다고 인식한다 [35][43].

개인의 노력에 따른 성취와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비판하는 부정적 인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른바 ‘수저론’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유력한 사회인식의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회적 현실인식의 틀로서 수저론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44]. 첫째, 수저론은 주관적 인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사회 수저론은 객관적 증거에 얼마만큼 근거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이념과 가치에 강력히 각인되어 노력성취와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왜곡하고 있다. 둘째, 수저론은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인식, 특히 현실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불공정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그러나 가정환경이나 학맥, 인맥 등 귀속요인에 의해 기회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현실을 타개할 수 없고 계층사다다리를 타고 상향이동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저론의 핵심이다. 셋째, 수저론은 그래서 운명론적인 성향을 지닌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신하는 것이 수저론의 세계관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희망적 수사들이 유통되고는 있으나 운명론적 사고성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에 대해 비판적

인 전망을 갖도록 부추긴다.

수저론에 반영된 메시지, 즉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 및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민의 이타적 사회참여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45]. 제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돈을 모으면서 성공하고자 발버둥 쳐도 상향이동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세상은 기득권층 위주로만 돌아갈 뿐이라는 인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융합하기 힘든 주류사회의 모든 공동체적 활동과 행위들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갖게 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게 만든다 [46]. 그가 몰입하는 것이라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복지 증진일 뿐이며 오늘날 이는 혼밥, 혼술과 같은 나홀로 생활에 대한 예찬으로 표출되고 있다[47].

사회적 고립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상호호혜의 의무, 협동, 참여, 낙관적 태도, 미지의 타자에 대한 믿음과 같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들이 증발되어 감을 의미한다[48]. 나아가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정착제이자 유희유희로서의 집단 응집력이 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응집력의 쇠락은 자원봉사나 기부행동과 같은 이타적 사회참여활동의 위축을 예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히 우려되는 현실은 시민의 이타적 사회참여활동이 증발한 빈자리를 이웃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무관여, 기득권층에 대한 적의, 주류사회에 대한 불만이 급속히 채워감으로써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되고 각자도생하는 이기적 경쟁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49][50].

6. 종합

이 연구는 상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별경험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이고 친사회적인 사회참여활동,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그와 함께 차별경험과 자원봉사참여의 관계에서 기회평등과 노력성취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점검한다.

차별경험이 기회평등과 노력성취를 매개로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문헌에 보고된 바 없다. 해외 문헌에는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수행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51],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 일반 성인시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 연구에서와 같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 그 이후에 등장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 변수 간 관련성을 살핀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은 이 연구의 차별성은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총 세 개의 베이비붐 세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6]. 이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한다. 2차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구집단이다[20]. 요 준거집단으로서 이들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상과 지위, 활동량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계급이동,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에 관한 논의에서 이 연구의 조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며 일반화가능성 역시 극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차별경험, 기회평등, 노력성취, 자원봉사참여의 관계를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력과 생산력을 보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점검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발적 자치역량을 포함한 집단응집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그와 함께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함으로써 자원봉사관련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꾀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동그라미 재단에서 2016년 3월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는 전국 만 16세 이상~만 74세 이하 남녀

3,52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고 한국리서치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 및 60대 이상 일부 일반국민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원자료 가운데 2016년 조사당시 만 42세(1968년생)부터 만 48세(1974년생)였던 2차 베이비부머 474명을 선별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확정되었다.

2. 연구가설

상기 문헌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총 아홉 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부터 가설 [6]까지는 직접효과, 가설 [7]부터 가설 [9]까지는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표 1. 연구가설

가설	내용
[1]	차별경험은 기회평등부정평가에 +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차별경험은 노력성취부정평가에 +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차별경험은 자원봉사참여에 -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기회평등부정평가는 노력성취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기회평등부정평가는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노력성취부정평가는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차별경험은 기회평등부정평가를 매개로 노력성취부정평가에 +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차별경험은 기회평등부정평가와 노력성취부정평가를 매개로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기회평등부정평가는 노력성취부정평가를 매개로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변수정의

연구모형은 세 개의 잠재변수와 하나의 관측변수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차별경험’은 외생잠재변수로서 독립변수이다. ‘기회평등 부정평가’와 ‘노력성취 부정평가’는 각각 내생잠재변수로 순차적으로 매개변수 역할을 담당한다. ‘자원봉사참여’는 내생관측변수이며 종속변수이다. 연구가설에 따른 주요 변수 간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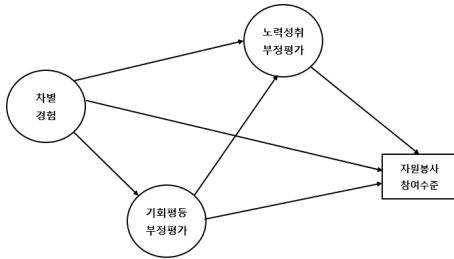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1 차별경험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고 그 답을 5점 척도로 기록한 외생잠재변수이다(0: 전혀 없다~4: 매우 자주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이유로 제시된 항목은 열 개로, 가족배경, 성별, 나이, 학력(학벌), 국적(인종), 종교, 외모, 지역, 신체장애, 정체성을 포함한다.

3.2 기회평등 부정평가

첫 번째 매개변수인 ‘기회평등 부정평가’는 우리 사회에서 성별, 소득, 집안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 답을 7점 척도로 기록한 외생잠재변수이다(0: 전혀 심각하지 않다~6: 매우 심각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회평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회불평등의 평가 영역으로 제시된 항목은 총 여섯 개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여행/공연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포함한다.

3.3 노력성취 부정평가

두 번째 매개변수인 ‘노력성취 부정평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 데 개인의 노력, 즉 성취요인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배경, 즉 귀속요인이 중요한지 의견을 묻고 그 답을 5점 척도로 기록한

내생잠재변수이다(0: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취요인이 중요하고 반대로 높을수록 귀속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설문에는 네 개의 하위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고위층의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이다”, “한국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이다. 마지막 항목은 역문항인 까닭에 리코딩 처리하였다.

3.4 자원봉사참여

종속변수인 ‘자원봉사참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자에게 지난 일 년 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묻고 그 답을 기록한 내생관측변수이다. 관측치들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0)부터 주 4회 이상(6)으로 7점 척도로 기록되었다.

4. 분석방법

모형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절차를 상술하면,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잠재개념 구성의 적절성 파악을 위하여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형검정에 투입할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후 자료의 결측치를 점검하고 추출된 요인들의 정규성 및 이상값 여부를 확인하고자 왜도, 첨도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수의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모형추정에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모형적합도 확인에는 카이제곱, RMR, GFI, NFI, TLI, CFI, RMSEA 등 지수들을 이용하였다. 한편 각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 점검을 위하여 합성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량(AVE)을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52].

다음으로 구조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추정에 앞서 변수들의 전반적인 점수 분포와 변수 간 관계 및 방향성 점검을 위해 기술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추정에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연구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기 모형적합도 지수들을 활용하였다. 그 다음 유의미하게 나온 경로계수들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의 존재여부 및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효과분해에는 붓스트래핑 법을 활용하였고 이때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확률 계산방법으로는 편의보정(BC) 백분위법을 사용하였다. 붓스트래핑은 1,000회 실시, BC 백분위법의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52].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494명 중 성별구성은 남성이 49.2%, 여성이 50.8%로 비슷하였다. 연령은 만 42세부터 만 48세까지 각각 14.6%, 11.4%, 15.8%, 18.6%, 14.1%, 14.6%, 11.0%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가 4년제이상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19]. 구체적으로, 4년제대학 졸업자가 38.4%였고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가 11.6%였다. 응답자의 삼분의 일(32.7%)은 고졸자였고 전문대졸업자는 16.7%였으며 고졸미만의 저학력자는 0.6%로 비중이 극히 낮았다.

대다수의 응답자(79.1%)가 배우자가 있다고 답했고 별거나 이혼, 사별상태인 응답자는 5.1%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15.8%는 미혼이었다. 취업의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들(79.1%)이 조사당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데 반해 구직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제활동인구(7.6%) 및 비경제활동인구(13.3%)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2차 베이비부머가 경제적으로 높은 활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21]. 비경제활동인구 가

운데 95.2%는 여성이었다.

소득의 경우 원자료는 가구월평균소득을 1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총 열 아홉 개 구간으로 나누어 측정, 기록하고 있는데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한 소득구간은 400~450만원이었다. 연속 변수가 아닌 구간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도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이 447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소득이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준에 놓여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주택점 유형태의 경우 절반이 넘는 응답자(58.4%)가 자가소유주였고 전세는 18.1%, 월세는 12.7%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지난 일 년 간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과반(58.6%)을 넘었다. 나머지 응답자 중 1년에 1~2회, 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3회, 거의 매일 봉사활동을 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3%, 6.8%, 8.2%, 3.8%, 0.8%, 0.4%로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이 연구의 잠재변수인 ‘차별경험’과 ‘기회평등 부정평가’, ‘노력성취 부정평가’는 각각 열 개, 여섯 개, 세 개의 하위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분석의 효율성 제고와 잠재개념 구성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먼저 ‘차별경험’의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한 결과, KMO 값은 0.862로 매우 높아 요인구조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차별경험’은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71.9%(20.7+28.6+22.5)로 높았다. 각 항목과 요인과의 상관도를 의미하는 요인적재치는 두 개 항목을 제외(성별, 가정배경)하고 모두 0.6 이상으로 높았고 다른 요인과는 0.4 미만의 상관도 차이를 보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성별과 가정배경에 따른 차별경험 항목의 경우 요인적재치가 각각 0.437, 0.392로 기준(0.6)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문항이 요인구조에서 차지하는 설명의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항 목	세 부 항 목	요인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KMO	크론바흐 α
차별경험	차별경험1	학력/학벌 차별경험	0.846	0.754	2,075	20.753	0.862	0.803
		나이 차별경험	0.717	0.732				
		성별 차별경험	0.437	0.716				
		가정배경 차별경험	0.392	0.600				
	차별경험2	신체장애 차별경험	0.860	0.771	2,862	28.620		
		성정체성 차별경험	0.844	0.762				
		외모 차별경험	0.569	0.698				
		출신지역 차별경험	0.632	0.634				
	차별경험3	국적인종 차별경험	0.663	0.750	2,254	22.541		
종교 차별경험		0.670	0.775					
기회평등 부정평가	기회불평등1	교육기회 불평등 심각	0.861	0.966	1,179	19.647	0.824	-
		취업승진기회 불평등 심각	0.919	0.941				
	기회불평등2	인맥쌓기 기회 불평등 심각	0.725	0.857	1,625	27.081		
		문화활동기회 불평등 심각	0.826	0.793				
	기회불평등3	건강관리기회 불평등 심각	0.897	0.880	2,400	39.998		
		정보획득기회 불평등 심각	0.824	0.767				
노력성취 부정평가	노력성취부정1: 한국고위층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		0.784	0.615	1,973	65.781	0.633	0.733
	노력성취부정2: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		0.767	0.588				
	노력성취부정3: 한국 사회는 개인이 노력한 만큼 성공이 가능한 사회		0.878	0.77				

비중을 나타내는 고유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높아 삭제될 보류하였다. 한편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 응답의 내적일관성을 보여주는 크론바흐 α값은 모두 0.8 이상으로 높아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추출한 요인은 각각 차별경험1, 차별경험2, 차별경험3으로 명명하였다.

‘기회평등 부정평가’ 역시 KMO 값이 0.824로 매우 높아 요인구조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기회평등 부정평가’는 총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86.6%(19.6+27.1+39.9)로 높았다. 모든 항목들의 요인적재치는 0.7 이상이었으며 다른 요인의 항목들과는 0.4 미만의 상관도 차이를 보임으로써 집중타당도와 판발타당도가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크론바흐 α값은 모두 0.8 이상으로 높아 신뢰성 역시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출한 요인은 각각 기회불평등1, 기회불평등2, 기회불평등3으로 명명하였다.

‘노력성취 부정평가’의 경우 마지막 네 번째 항목, 즉 “한국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 문항을 삭제하는 것이 전반적인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해당 항목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모든 지표들이 불량하게 산출되는데, 추정컨대 그 이유

는 해당 항목이 나머지 항목들과 달리 역문항으로 제시되어 응답자들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네 번째 항목을 삭제한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노력성취 부정평가’는 단일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높은 KMO 값(0.633)과 요인적재치(>0.7) 및 분산설명력(65.8%)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항목 간 내적일관성이 0.733으로 높아 신뢰도 역시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일요인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항목들은 각각 노력성취부정1, 노력성취부정2, 노력성취부정3으로 명명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자료에 이상치나 결측값이 있는지 그리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측치는 없었다. 또한 각 요인의 왜도, 첨도가 모두 0을 기준으로 2 미만의 절대값을 나타냄으로써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고 이상치 문제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요인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결과

항 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차별경험1	474	0.0	3.8	1.67	0.76	0.00	-0.30
차별경험2	474	0.0	3.5	1.05	0.75	0.45	-0.47
차별경험3	474	0.0	4.0	0.97	0.82	0.46	-0.54
기회평등 부정평가1	474	0.0	6.0	3.73	1.19	-0.09	0.16
기회평등 부정평가2	474	0.0	6.0	3.21	1.06	0.08	0.81
기회평등 부정평가3	474	0.5	6.0	4.04	0.96	0.05	0.21
노력성취 부정평가1	474	0.0	4.0	2.93	0.91	-0.76	0.24
노력성취 부정평가2	474	0.0	4.0	2.03	1.08	-0.01	-0.76
노력성취 부정평가3	474	0.0	4.0	2.62	0.95	-0.29	-0.49
자원봉사참여	474	0.0	6.0	2.08	1.60	0.57	-1.12

다음으로 관측변수들의 유의성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 보여주듯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23.9$ (d.f.=30), RMR=0.590, GFI=0.948, AFGI=0.905, NFI=0.926, TLI=0.913, CFI=0.942, RMSEA=0.081로 양호하였다. 또한 모든 관측변수들은 잠재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었고(p<0.001), 표준화 회귀계수는 0.6 이상, 다중제곱상관(SMC)은 0.3 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도구로서 적합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합성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CR은 0.7, AVE는 0.5 이상을 나타내어 각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계산한 후 이를 [표 5]에서와 같이 각 잠재변수의 AVE와 비교하

는 절차를 거쳤다. 비교결과, AVE는 모두 0.5 이상이고 상관관계의 제곱값보다 0.3 이상 커 서로 다른 변수 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 5. 잠재변수의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구 분	차별경험	기회평등부정평가	노력성취부정평가
차별경험	0.705	-	-
기회평등부정평가	0.045	0.584	-
노력성취부정평가	0.007	0.234	0.517

4. 구조모형 및 연구가설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모형에 투입할 변수들이 적절한 양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차별경험’은 평균 1.23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회평등 부정평가’와 ‘노력성취 부정평가’는 각각 평균 3.67, 2.52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리고 ‘자원봉사참여’는 평균 2.08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참여’의 평균값이 낮게 나온 까닭은 응답자이 절반가량이 자원봉사참여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표 3]에서 확인하였듯이 ‘자원봉사참여’의 왜도와 첨도가 정상범위 안에 놓여있어 변량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의 방향과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구조모형 검증에 문제가 없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구분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편차	t	p	SMC	측정오차 분산	집중타당도	
									CR	AVE
차별경험	→	0.626	0.695	0.055	12.733	***	0.391	0.350	0.876	0.705
	→	0.824	0.901	0.062	14.472	***	0.679	0.179		
	→	0.831	1	-	-	-	0.391	0.209		
기회평등 부정평가	→	0.815	1.169	0.065	17.881	***	0.664	0.474	0.807	0.584
	→	0.678	0.870	0.058	15.048	***	0.460	0.609		
	→	0.859	1	-	-	-	0.691	0.209		
노력성취 부정평가	→	0.661	0.732	0.058	12.627	***	0.437	0.464	0.757	0.517
	→	0.601	0.775	0.067	11.528	***	0.350	0.750		
	→	0.866	1	-	-	-	0.437	0.464		

Chi-square=123.9, d.f.=30, p=0.000, RMR=0.590, GFI=0.948, AFGI=0.905, NFI=0.926, TLI=0.913, CFI=0.942, RMSEA=0.081

*p < 0.05, **p < 0.01, ***p < 0.001

표 6. 기술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변 수	기술분석			상관분석			
	평균	표준편차	범위(0~)	차별경험	기회평등 부정평가	노력성취 부정평가	자원봉사 참여
차별경험	1.23	0.65	3.25	1	-	-	-
기회평등 부정평가	3.67	0.92	5.83	0.213**	1	-	-
노력성취 부정평가	2.52	0.79	4.00	0.184*	0.484**	1	-
자원봉사참여	2.08	1.60	6.00	-0.082+	-0.118*	-0.150**	1

+p < 0.10, *p < 0.05, **p < 0.01, ***p < 0.001

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측정모형 검증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모형 상에 기재된 모든 변수 간 경로들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추정을 실시하였다[표 7]. 추정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28.5$ (d.f.=31), RMR=0.680, GFI=0.946, AFGI=0.905, NFI=0.923, TLI=0.913, CFI=0.940, RMSEA=0.082로 양호하여 모형이 자료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각 변수 간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고 가설 채택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차별경험’은 ‘기회평등 부정평가’와 ‘노력성취 부정평가’에 각각 유의하게 + 영향을 미쳤으나, ‘자원봉사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과 가설 [2]를 채택하고 가설 [3]을 기각하였다. 또한 ‘기회평등 부정평가’는 ‘노력성취 부정평가’에 유의하게 + 영향을 미쳤으나, ‘자원봉사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4]를 채택하고 가설 [5]를 기각하였다. ‘노력성취 부정평가’는 ‘자원봉사참여’에 유의하게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분해를 실시하여 주요 변수 간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다[표 8]. 분석결과, ‘차별경험’이 ‘노력성취 부정평가’에

발생시킨 총효과 중 간접효과는 0.1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에서 ‘기회평등 부정평가’가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본 가설 [7]을 채택하였다. 이때 매개관 부분매개를 의미한다. 또한 ‘차별경험’이 ‘자원봉사참여’에 발생시킨 총효과 중 총간접효과는 0.1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에서 ‘기회평등 부정평가’와 ‘노력성취 부정평가’가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본 가설 [8]을 채택하였다. 한편 ‘기회평등 부정평가’가 ‘자원봉사참여’에 발생시킨 총효과 중 간접효과는 -0.132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에서 ‘노력성취 부정평가’가 매개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 가설 [9]를 채택하였다. 이때의 매개효과는 완전 매개효과를 의미한다.

효과분해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에 기여도가 큰 선행변수를 총효과 크기대로 나열하면, ‘노력성취 부정평가’(-0.205) > ‘차별경험’(-0.172) > ‘기회평등 부정평가’(-0.163) 순이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로계수를 포함한 이 연구의 최종 인과모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7. 구조모형 및 가설 검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편차	t	p	가설	검증	
차별경험	→	기회평등 부정평가	0.189	0.199	0.059	3.450	***	1	채택
	→	노력성취 부정평가	0.061	0.153	0.051	2.066	*	2	채택
	→	자원봉사참여	-0.037	-0.217	0.202	1.097	0.294	3	기각
기회평등 부정평가	→	노력성취 부정평가	0.646	0.730	0.054	11.860	***	4	채택
	→	자원봉사참여	-0.031	-0.248	0.259	1.094	0.271	5	기각
노력성취 부정평가	→	자원봉사참여	-0.205	0.650	0.257	-2.785	**	6	채택

Chi-square=128.5, d.f.=31, p=0.000, RMR=0.680, GFI=0.946, AFGI=0.905, NFI=0.923, TLI=0.913, CFI=0.940, RMSEA=0.082

*p < 0.05, **p < 0.01, ***p < 0.001

표 8.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설	채택
차별경험	→ 기회평등 부정평가	0.189***	-	0.189***	1	채택
	→ 노력성취 부정평가	0.061*	0.122**	0.183**	2 7	채택 채택
	→ 자원봉사참여	-0.037	-0.135**	-0.172**	3 8	기각 채택
기회평등 부정평가	→ 노력성취 부정평가	0.646***	-	0.646***	4	채택
	→ 자원봉사참여	-0.031	-0.132*	-0.163*	5 9	기각 채택
노력성취 부정평가	→ 자원봉사참여	-0.205**	-	-0.205**	6	채택

*p < 0.05, **p < 0.01, ***p < 0.00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모두 표준화회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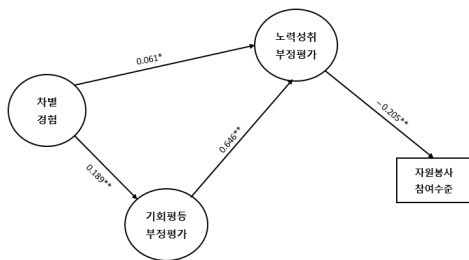


그림 2. 인과모형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다발적으로 감지되는 자발적 사회참여의 감소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45]. 이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참여 유형 중 특히 기부행동과 함께 시민사회 집단 응집력의 바로미터로 흔히 거론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경험한 차별을 자원봉사참여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가정하고, 차별경험, 기회평등 및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평가와 자원봉사참여수준과의 관계를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 중인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발적 자치역량을 포함한 집단응집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경험은 기회평등과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하게 + 영향을 미쳤다. 이는 차별을 경험할수록 우리사회의 기회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 상향이동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차별경험은 자원봉사참여수준에도 유의미하게 - 영향을 미쳤다. 이는 차별을 경험할수록 자원봉사를 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별경험이 자원봉사참여수준에 미치는 - 효과는 나머지 두 개의 매개요인들을 통한 간접효과에서 대부분 기인하였고 직접효과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평가는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의 기회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향이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평가는 자원봉사참여수준에도 유의미하게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는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평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서 대부분 기인하였고 직접효과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셋째,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평가는 자원봉사참여수준에 직접적으로 -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향이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질수록 자원봉사활동도 덜 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노력성취 부정평가가 자원봉사참여수준에 미치는 - 총효과는 선행요인인 차별경험과 기회평등 부정평가가 각각 자원봉사참여수준에 미치는 - 총효과보다 현저하게 컸다. 이는 차별경험과 기회평등 부정평가가 노력성취 부정평가를 매개로 하여서만 자원봉사참여수준에 -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 다시 말해 자원봉사참여수준은 노력성취 부정평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될 뿐이라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감안하였을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차별경험과 기회평등 및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모두 자원봉사참여를 저해하는 인과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차별경험은 그 자체로 자원봉사참여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짓지 못하였고 기회평등과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적 인지평가를 매개로 효과를 발생시켰다. 마찬가지로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그 자체로 자원봉사참여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요인이 못 되었으며 노력성취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켰다.

2. 연구결과 논의

상기 연구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며 직접적인 방안은 개인적 노력을 통한 상향이동 가능성의 제고와 그에 대한 낙관적 믿음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회적 성공에 필요한 요소가 가정환경이나 학벌, 인맥, 인종, 출신지 같은 귀속 요인에 달려있다고보다 근면, 성실, 노력, 책임감, 투쟁심 같은 성취요인에 놓여 있다는 믿음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주어진 현실을 타개하고 계층 사다리를 타고 상향 이동 하는 것이 누구든 가능하다는 낙관을 배양한다[1]. 이러한 낙관을 내면화한 개인들은 공동체의 이방인으로 주변화되거나 방관자로 지목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은 소속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상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집단 내부에 어떤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는 적극성과 책임감을 체화한다[36].

이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작동원리를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40대 중후반의 연령대로서 우리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앞선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이후 등장한 에코 세대보다 집단주의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18].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이와 같은 이중적 속성은 이들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나 기회균등 원리의 훼손, 계층구조의

폐쇄성과 같은 반자유주의적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자원봉사나 기부행동 같은 공동체주의적 사회참여활동에 우호적 태도를 갖는 독특한 코호트 집단임을 시사한다. 그런 만큼 평등, 공정, 정의, 자발성, 공동체 같은 이슈들과 관련해 2차 베이비부머들이 갖는 생각과 가치, 태도를 입증한 이 연구의 조사결과가 갖는 시사점 및 일반화가능성은 기타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여타 연구들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차별경험과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지평가는 자원봉사참여수준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당 요인의 영향력을 평가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경험과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평가는 직접적으로는 자원봉사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평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자원봉사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적 성취를 통한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제거만큼이나 개인의 차별경험을 최소화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기회구조를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차별경험과 기회불평등은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 할 부정적 사회현상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중차대하게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양자가 인과적으로 결합하였을 때 - 앞서 자발적 시민참여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으로 지목한 -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힘으로 비화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차별을 경험한 개인은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가 특정 계층에 편향돼 있다고 느낀다.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된 소수자는 자신을 소외시킨 '그들'에 대한 분노와 적의를 키우며 무력감과 열패감 같은 비생산적 감정에 빠져든다[18].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은 시민사회 성원들의 참여와 관여에 관한 자발적 역량을 저해하고 연대감, 책임의식, 주인의식 같은 공동체 존속 및 번영, 발전에 필요한 생산적 가치들, 다른 말로 집단응집력을 훼손하는 부정적 힘으로 비화한다[13].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 경험하는 차별경험을 최소

화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구조를 향유하는, 정의로운 환경 조성 노력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공을 거두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무사한 보상체계를 징검다리 삼아 누구든 기회의 사다리를 타고 상향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법제도로 뒷받침되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은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 자원봉사나 기부행동 같은 시민의 자발적 사회참여활동은 차별이 없고 기회구조가 공정하며 수저론적 숙명론이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성숙하였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탄탄한 집단응집력을 자양분 삼아 촉진될 수 있다.

3. 시사점 및 연구한계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계획은 차별 없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8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제3차 자원봉사활동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문화와 참여에 대한 영역 중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에 대한 정책 과제를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신뢰자본 회복 및 공동체 재건과 같은 자원봉사 역할의 확장에 대한 정책적 배경과 함께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3]. 이와 같은 국가의 자원봉사 계획 수립에 더하여 사회적 공평성 추구에 대한 자원봉사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공평성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가정 자원봉사진흥원 지역센터를 신설하여 민주시민 및 공공성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련하여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센터의 실행체계를 개발하고 대상별 시민교육 커리큘럼을 발굴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현존하는 자원봉사자 관리기관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기획 과정에 2차 베이비붐 세

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자원봉사 참여동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사명감 동기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다[29].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관리기관은 사회적 불평등 이슈와 관련된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불평등 인식을 공감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더욱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 실천과 평등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 봉사 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 관리기관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자발적 사회참여를 유도해 내야 한다. 현재 대부분 40대 중후반 연령대에 속하는 2차 베이비붐세대들은 취업률이 높은 편에 속하며 자신의 개인 취미활동도 중요시하지만 가족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다[19]. 이와 같은 코호트 특성을 반영하여 직장인 자원봉사활동 및 가족 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2017년 자원봉사실태조사 결과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부족이었다[29]. 이러한 국내 자원봉사 특징과 관련하여 김옥진(2015)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 상 절대적인 업무시간이 길어 자원봉사참여가 쉽지 않다는 결과를 밝히며 자원봉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일부 기업의 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2차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경우 직업이 있으면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중년기 직장 남성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기도 한다[18][54]. 이처럼 직장생활과 자원봉사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단위의 봉사는 제3차 자원봉사활동 진흥 기본계획에서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53]. 가족과 함께 봉사하면서 유대감, 의사소통 등의 가족건강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있다[54][55]. 이와 같이 직장 및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원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나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력해왔던 개인의 내적 참여동기 및 인적 특성요인 파악에서 차별경험, 기회평등, 상하이동과 같은 사회 구조적, 인지적 요인으로 연구의 영역과 주제를 확장시켰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2차 베이비부머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세대별 불평등 의식의 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불평등 의식의 변화를 부모세대-2차 베이비부머 본인세대-자녀세대나 혹은 노인세대-중장년세대-청년세대와 같이 세대별로 비교하여 파악하고 코호트 특성에 따라 자발적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을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한준, “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60주년 기념 논문집, pp.41-62, 2017.
- [2] 주성수, “한국 시민사회지표 2008-2010,”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1호, pp.5-24, 2010.
- [3] 김경동, *자발적 복지사회*, 아르케, 2012.
- [4] 이강현, *자원봉사의 길*, 아르케, 2013.
- [5] 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제2호, pp.235-257, 2015.
- [6] 김정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7] 주성수, *나눔문화: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시민참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8] 김옥진, 임동권, 이성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1권, pp.25-49, 2014.
- [9]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pp.89-122, 2011.
- [10] 천희란, 김일호, “노인차별과 정신건강,”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9권, 제5호, pp.2741-2754, 2017.
- [11] 성정현, “탈북여성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종속화된 낙인과 탈북여성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 한국가족복지학, 제53권, pp.79-115, 2016.
- [12] 류한수,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345-356, 2016.
- [13] 윤인진, 김춘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4.
- [14] 최인희,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15] 박서영, 최희정,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666-674, 2016.
- [16] 방하남,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노동리뷰, 2월호, pp.5-9, 2011.
- [17] 박시내, 심규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후과 분석*, 통계개발원, 2010.
- [18] 변진숙, 권찬호, “2차 베이비부머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4호, pp.173-199, 2016.
- [19] 최은영,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20] 박해식, 임진, *베이비붐세대의 고용, 소득, 자산 구조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3.
- [21] 김유빈, “청년고용의 현황 및 대응방안,” 월간노동리뷰, 3월호, pp.9-22, 2017.

- [22] 김정은, 구혜경, “X세대 기혼여성소비자의 생애 사적 관점에서의 소비생활 탐색,” 소비문화연구, 제20권, 제4호, pp.19-49, 2017.
- [23] 김우성, 허은정,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제10권, 제4호, pp.31-53, 2007.
- [24] 이은희, 김경자, 이성림, 유현정, 차경욱, 이영애, 이준영,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pp.197-227, 2015.
- [25] 이현정, “1, 2차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부모의 세대 간 주택자산효과 차이 비교,” 도시행정학보, 제29권, 제2호, pp.105-130, 2016.
- [26] 송기영, 김옥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444-460, 2017.
- [27] 김옥진, *자원봉사*, 청목출판사, 2015.
- [28] UNV, *State of World's Volunteerism Report*, United Nations: Volunteers, 2011.
- [29] 주성수, 정희선, 윤영미,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사)한국자원봉사문화·행정안전부, 2018.
- [30] R. Dawkins,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31] G. Sechrist and C. Stangor, “Prejudice as Social Norms,” In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Edited by C. Crandall and M. Schaller. Lewinian Press, pp.167-187, 2005.
- [32] J. Greenberg and T. Pyszczynski, “The Effects of an Overheard Ethnic Slur on Evaluations of the Targe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1, pp.61-72, 1985.
- [33] I. Katz and R. Hass,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pp.893-905, 1988.
- [34] 남혜경, 김영순, “한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초국적 공동체 활동에 나타난 입과워덤트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6호, pp.799-817, 2017.
- [35] 신광영, “한국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25-141, 2016.
- [36] 이병훈,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2호, pp.157-179, 2017.
- [37] 김종성, 이병훈,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제90권, pp.296-330, 2014.
- [38] 이하영, 이수영, “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pp.325-354, 2016.
- [39] 이재완, “계층이동 사다리 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pp.189-223, 2013.
- [40] E. Uslaner and M. Brown, “Inequality, Trust, and Civic Engagement,”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33, No.6, pp.868-894, 2005.
- [41] S. Kelly and C. Kelly, “Subjective Social Mobility: Data from 30 Nations,” In *Charting the Globe: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4-2009*, Edited by M. Haller, R. Jowell, and T. Smith, Routledge, pp.106-124, 2009.
- [42]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2호, pp.25-43, 2013.
- [43]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동그라미재단 연구리포트 4호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연구, 2016.
- [44] 한준, “시민사회의 성숙과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 제16권, 제2호, pp.223-254, 2015.
- [45] 임현진,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60주년 기념 논문집, pp.21-38, 2017.
- [46] 강철희, 이상철,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5권, 제4호, pp.1-28, 2013.
- [47] 오수연, “나홀로족 전성시대,” 마케팅, 제50권, 제8호, pp.59-62, 2016.

[48] D. Aldrich and M. Meyer,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59, No.2, pp.254-269, 2015.

[49] 신희주, "동네는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에 힘을 발휘하는가?," *사회와 철학*, 제34권, pp.1-26, 2017.

[50] S. Gerhardt, "The Selfish Society: The Current State of Things," *The Political Self: Understanding the Social Context for Mental Illness*, p.69, 2016.

[51] R. Kluegel and R. Smith, *Beliefs about Inequality*, Routledge, 2017.

[52]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2012.

[53] 관계부처합동,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 2018.

[54] 박경애,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 경험의 효과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5권, 제4호, pp.79-105, 2011.

[54] 고기숙, 이혁구, "중년기 직장 남성의 사회적 위기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pp.9-41, 2004.

[55] 이지원, 박정윤, 김양희,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6권, 제6호, pp.89-100, 2008.

이 현 민(Hyunmin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문학사)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8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일인가구, 관계자원, 지역사회복지

김 욱 진(Wook-Ji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04년 6월 :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A.M.)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Ph.D.)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자원봉사, 공동체, 사회적 자본

저 자 소 개

윤 예 인(Ye-In Yoon)

정회원



- 2017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7년 9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정신건강, 중독, 노인